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로 경쟁력있는 양돈산업 만들자”

기대와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17대 국회가 벌써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에 입성한 후에 민생정치, 정책정치를 표방하며 그동안 서민, 노인, 장애인, 불우이웃, 농어민, 축산인 등 사회 약자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면서 그들로부터 진정한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줄서기와 권력다툼이 더 가까운 정치현실에서 초선의원이 소신 있게 민의를 대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홍문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고, 농어민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길을 가고자 했던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살아 왔습니다.

이러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필요한 법은 만들고 잘못된 법은 폐기시켜 서민, 농어민, 축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아 활동 하면서 한·미, 한·EU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활동 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폐지하려던 농기계, 선박 등의 면세유 비과세 감면제도를 영구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농·어업용 면세유 비과세 혜택기간 5년(2012년) 연장시켰습니다. 면세유 연장으로 1년에 2조 116억 정도의 농어민 부담 절감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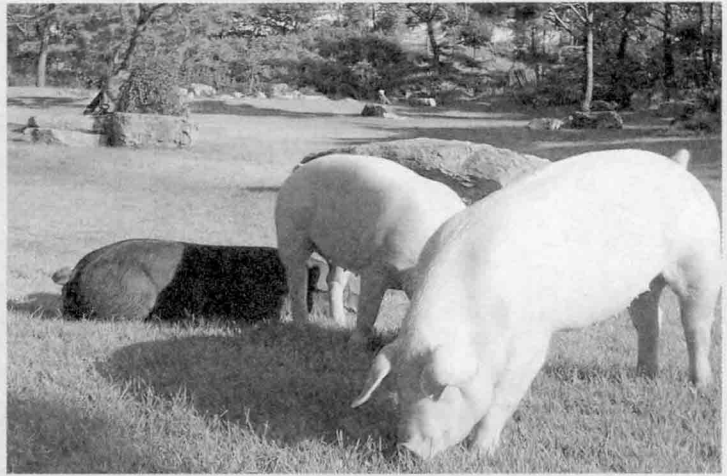
또한 농지내 축사설치를 용의토록 한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여 관철시켰으며,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 축사 등 농업시설을 포함시키는 가하면, 가축분뇨 해양배출부가세 부과(10년간 160억) 정부



홍 문 표 국회의원
한나라당(예산·홍성)

방침을 철저히 지켜 개방화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현재 우리농업 총 생산액 중 쌀 생산액 8조5,368억원보다 축산 생산액이 11조7,672억원으로 약 3조2,304억원 정도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축산정책이 쌀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농업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바로 축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면한 우리 축산업의 현실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축산의 활로를 효과적으로 터주지는 못할망정 20년, 30년 전의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축산을 바라보고, 또 농정을 편다면 이는 우리 농촌의 밝은 미래를 우리 스스로 어둡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축산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력추적시스템, 항생제 오남용 방지, 생산비 절감, 가축분뇨처리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FTA 등 개방화 시대에 축산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축산인증제를 대폭 확대하여 축산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야 됩니다.

한·미 FTA로 인해 농업분야에 연간 약 6천7백억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중 축산이 70%에 해당하는 4천7백억원에 이르고 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있을 한·EU, 한·중 FTA 등 농업개방이 가속화 될 경우 수많은 농업인이 농촌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농업분야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러한 농업분야, 특히 축산업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1차 산업으로서의 농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어업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유통을 연계하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대비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식품산업본부’를 설치하여 지역단위 식품클러스터 조성, 식품·외식산업 육성, 한식세계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등을 통해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40억불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경쟁가능 인력에 집중 투자하여 농업을 1, 2, 3차 산업과 연계한 융합산업으로 전환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FTA에 대비 FTA기금을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을 추가 증액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료가격 상승 부담완화 대책으로는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한시 특별지원 자금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사료외상구매 이자(연 12~24%) 경감을 위해 연리 3%, 상환기간 1년 조건으로 특별지원 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사료원료곡물의 관세율 인하(하반기 할당관세 조정), 금년 말 종료되는 배합사료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시킬 방침입니다.

전국 양돈인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밖으로는 개방의 파고에, 안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직면해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는 가격 경쟁의 우위를 갖춘 외국농축산물이 밀려들어오고 있고 국내 농축산물은 소비와 가격 경쟁력이 나날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도 이제는 이러한 개방화 물결에 적응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도 스스로 체질 강화에 나서야 함은 물론, 정부가 아무리 지원해도 농민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뼈아픈 교훈은 지난 10년으로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도시 소비자가 원하는 농축산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농축산물 수입국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이에 맞는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에 승부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

FTA 등 농업개방으로 인해 농촌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농촌에도 문화, 교육, 의료가 있고 최저 농수산물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농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홍문표는 여러분들을 위해 개방화의 거센 파고를 맞설 수 있는 고품질·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지원을 강화하고, 특화농업을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떠나가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돈**